

보도일시 : 2026년 9월 1일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6. 9. 1. 15:30	담당부서	한국수소연합 산업지원실
		담당자	강영택 실장 (02-6258-7453) 이수연 선임연구원 (02-6258-7479)

한국수소연합, 완주군 수소에너지고·한국가스안전공사·우석대학교와 '수소 전문인력 조기 육성 및 지역 상생' 5자 업무협약 체결

- 고교-대학-전문기관-산업계를 연계한 지역 수소인재 성장체계 구축
- 교육부터 현장실습·취업까지 연계...지역 수소산업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

한국수소연합(회장 김재홍)은 9월 1일 완주군청에서 완주군,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에너지고등학교, 우석대학교와 함께 지역 수소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5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수소에너지고등학교 송현진 교장,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홍철 기술이사, 완주군청 유희태 군수, 한국수소연합 정석진 사무총장, 우석대학교 이흥기 부총장

이번 협약은 완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등 지역의 수소산업 기반과 연계해 지역에서 수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소기업과 산업현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교 단계의 현장실무 교육에서부터 대학의 전문·이론교육, 수소안전 전문기관의 현장교육, 산업계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인재 성장경로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수소 전문인력 양성 모델을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수소 안전관리 실무 교육과정 및 교재 공동 개발 ▲수소·안전관리 분야 자격취득 및 특강 지원 ▲수소 전문기업 현장견학 및 취업 연계 ▲지역 상생을 위한 수소산업 안전문화 확산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기관별로는 한국수소연합이 회원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 연계와 현장 견학·취업 지원을 맡고, 완주군은 행정·예산 등 지역 차원의 지원에 나선다. 수소에너지고등학교는 교육과정 편성과 학생 참여·관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장 중심의 수소안전 교육과 실습, 우석대학교는 교육프로그램 구성과 이론 교육을 각각 지원한다.

한국수소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교·대학·전문기관·지자체·산업계를 연계한 지역상생형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터 현장실습·취업까지 이어지는 지역 수소인재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석진 사무총장은 “수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고, 교육과 취업이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의 교육·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인력양성 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다른 수소산업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2026년 하반기부터 교육과정 운영, 현장학습 및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끝)